

답을 가진 사람 시편 110:1-7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답을 가진 사람이다. 다윗의 시이다. 다윗의 신앙고백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많이 들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답이 되는 내용이다. 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 그리스도로 인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도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개인적으로 언약이 되었을 것이다. 믿어졌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마음 속에 인생의 답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있다. 1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임을 알았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약속하신 것도 말씀하셨다. 너의 원수가 너의 발판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한 것도 알았다.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보았다.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2절은 주님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는 것을 알았다. 다스릴 자는 주님이시고, 원수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은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 중요한 비밀이다.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생명을 걸어야 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3절에는 보면 주님에게 권능의 날이 있는 줄 알았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그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늘 들어서 그렇지만 이것을 진짜 알면 대단한 것이다. 분명히 다시 오시는 권능의 그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때는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그 때에 구원 받은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 4절에는 보면 그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알았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단어이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윗이 알았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천년 이후의 사람이다. 아브라함 이후에 그 때 일어났던 사건을 말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 뿐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4장에서 한번 나오고 오늘 본문 시편 110편에서 나온다. 다른데는 구약성경 전체에 말해진 적이 없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을 정확히 알고 체험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 뿐이었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우리의 제사장이 될 것을 말했다. 알게 해주셨으니까 알고 말을 한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제일 먼저 봤다. 그리고 주님은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제일 먼저 말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어서 히브리서에서 기록한 것이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족보가 없다는 것은 세상의 기록, 역사가 없다는 것이다.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멜기세덱은 세상의 근거가 없는 분이다.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다. 하늘에서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의 서열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다. 모든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족보도 있다. 그들은 생명이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났는지 세상 기록도 다

있다. 그런데 주님은 없다. 그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다. 사람 제사장은 영원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 5절에는 보면 다윗은 주의 오른 편에 계신 주님이 노하시는데 뭐 할 것을 알았다.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때는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많은 나라를 심판해서 시체로 가득할 것을 아셨다. 그리고 여러나라의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것도 알았고, 심판하실 것도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의 권능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다. 참 놀라운 일이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권능의 규모 세상을 다스릴 것을 아셨다. 주의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들, 새벽 이슬같은 청년들이 그에게 나아올 것을 알았다. 새벽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 도다. 그 날 주님에게 새벽 이슬같은 하나님의 구원 받은 청년들이 나오는 것을 그림으로 본 것이다. 아브라함 이외에는 아무도 멜기세덱을 말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천년 이상 이후의 사람이 직접 만난 아브라함보다 더 깊이 비밀을 말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멜기세덱을 만났고 십일조를 드렸다는 정도만 기록하고 있다. 물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다. 천년 이후에 사람인데도 그리스도에 대한 중대한 비밀 한가지를 말한다. 이것은 근본 신분에 대한 비밀이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이 일어날 것을 나열을 하였다. 주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세상에는 근거가 없는 제사장이라고 고백했다. 히브리서 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다. 대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본다.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이 썼다면 사도바울이 창 14장과 시편 110편을 기준으로 해서 히브리서 7장 전체를 쓴 것이다. 그리스도는 언약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된다. 얼마나 아는 가는 우리의 기도가 어느정도 응답될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역자들, 또는 제자가 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스도는 왕들을 심판하고 못 나라를 심판할 것을 알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 시체가 가득할 것을 보았다. 그냥 아름다운 심판이라는 단어가 아니다. 시체가 가득할 것을 봤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준 것 같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시무시하다. 다윗에게 보여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약속의 피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노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감각적으로 알려줬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천국천국 하다가 지옥에 한번 가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이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들을 보면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대통령이 전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는가? 성경에 다윗이 본 것이다. 하나님이 못 나라를 무너뜨리고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만일 이 그림을 다윗에게 보여줬다면 다윗이 어떤 느낌이 들었겠는가? 우리에게도 보여주면 너무 귀하겠지만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고 상상으로만이라도 정리해야 한다. 그 날이 오면 온 세상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다. 왕이나 대통령은 평소엔 말 꽤나 한다. 어깨에 힘 주고. 필요 없다. 다 깨진다. 말

숨이 들어왔으니 믿음이 되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언약이 되고 그림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답을 가졌는데,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영적 상태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어땠을까? 확신이 있다면 무슨 일이 왔을 때 흔들리겠는가? 답을 가졌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봤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림으로 봤다. 다윗은 시편 전체의 절반을 쓴 사람이다.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는 깊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이 그림 하나만 들어와서 가슴에 살아 있어도 놀라웠을 것이다. 그는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다.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다. 그리고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다.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꺾은 것은 불신자도 다 알고 있었다. 그것으로 나라를 건졌다. 놀라운 일이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좌를 봤다. 그런데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천사 이야기 나오고 스랍 이야기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이야기가 나온다. 그 때 자기가 받은 말씀 나오고 그렇다. 스테반도 순교할 때 보좌 이야기는 없다. 주님이 서셨다는 말은 나온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일꾼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대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만나면서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봤다고 생각해 보라. 그게 그림으로 남아 있다.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심판에 대한 것이 그림으로 남아 있다. 어떻게 되겠는가? 잊을수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무슨 결정을 하든 항상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항상 무슨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기준이 뭔가가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위해 이런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2. 개인화

이제 중요한 것은 언약은 완성 되어 있기 때문에 내것이 되어야 한다. 다윗은 사실 중대한 계시를 받은 것이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원수들이 주님의 발판이 될 것, 중요한 계시를 받았다. 아론의 서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 주신 계시적인 깨달음이었다. 시체가 준비한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가슴에 들어온 것이다. 그때 새벽 이슬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나올 것이다, 그림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자기 개인의 삶과 미래에 대한 답이 되었을 것이다. 분명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무엇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항상 이유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보고 언약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게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언약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런데 우리도 있다. 다윗만 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계시를 따로 받을 필요 없다. 이미 와 있다. 뭐가 와 있나? 예수는 그리스도, 와 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와 있다.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 운명, 반드시 역전. 와 있다. 남은 것은 내것이 되느냐의 여부이다. 이미 와 있다. 뱀의 모든 머

리 박살. 당연히 24시간 하나님을 누린다, 약속 와 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나는 부족해도 복음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와 있다. 영적 문제 해결 안되는 것 없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한다. 와 있다. 이미 다 와 있다. 남은 것은 이 모든 계시들이 내것이 되는 것이다. 내게 들어와서 나의 것으로 자리 잡으면 그 때부터는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낫다. 못할 것이 없다. 다윗은 앞으로 되어질 계시를 받았다. 우리는 이미 되어진 계시를 받았다. 다 이루신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미 되어진 그것을 누려서 많은 사람들이 누려서 된 기록들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낫다. 분명히 더 낫다. 더 나올수 있겠는가? 더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완성된 약속을 가진 자들이다. 다 이루신 계시를 언약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것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것이 될 수 있을까? 복음이 내것이 되는데에는 왕도가 없다. 내 경험인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약속하셨다.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를 안하면 어찌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언약을 잡아라 응답하겠다. 그러면 언약을 잡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 영접할 것이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약속이다. 이렇게 하면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많은 증거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 안되는 경우도 있다. 입으로 잘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써보는 것이다.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여하튼 이런 영적 작업을 행동으로 옮기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지속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날 응답을 주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눈을 계속 열어주실 것이다. 내게 눈이 열린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중 대부분은 응답을 주로 생각한다. 거의 다 그럴 것이다. 빨리 안되면 왜 안되나 갈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주시라고 기도를 자꾸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언약 안에 있다. 응답 달라는 기도는 틀린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언약을 이해한 사람인가에 있다.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은 언약을 이해할 때이다.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 하고 복음을 이렇게 알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은 각자가 다 이해한다. 나의 경우에는 기도 응답이 안되어서 기도 안한다고 선언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초창기에는 그 전에 기도하던 것보다 시간이 영 짧았다. 기도를 훨씬 짧게 했다. 30초 정도. 그 전에는 한시간 정도 했는데. 그래도 응답은 전보다 많이 왔다. 메시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시작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마음 깊이 새겨지기 바란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다. 그가 이해한 것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기 바란다.